

LawSCHOOL 차오

미래의 희망 법전문

2014 + SEP



9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N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prologue

알렉산드로 푸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한게 되리니

LawSCHOOL **차** **오**

미래의 희망 법전문원

2014 + 09



- 04 **로스쿨 오피니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
- 10 **로스쿨 탐방**
맹수석 원장과 함께 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4 **통계자료**
통계로 보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마감현황
- 16 **행복 로스쿨**
서울대학교 로스쿨 이나현 학생

- 18 **파워 인터뷰**
서울고등법원 김송 재판연구원
- 22 **리걸클리닉 스케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 26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 school_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일
about the world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혜진

발행일 2014년 9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신영호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 30 **로스쿨 핫이슈**
일본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 36 **문화가 산책**
- 38 **협의회 소식**

info.leet.or.kr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오영근(吳英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장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여 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수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고 매우 낮은 난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변호사시험이 미국과 같이 순수한 자격시험이고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이루어진 시험이라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할 필요 없이 로스쿨시절부터 자신이 흥미를 가진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하고 장래에 종사할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변호사시험제도는 매우 애매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명한 것은 변호사 시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자격시험에서 선발시험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로스쿨학생들은 전국 최상위의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된다면 2-3년 후에는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시험은 선발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학생도 변호사시험 합격을 자신할 수 없으므로 로스쿨 재학시절 내내 변호사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에도 소위 심화과목의 대량 폐강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로스쿨제도를 막가는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조계인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로스쿨졸업생들의 수준이 낮다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주장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수준이 낮기는 기존의 법조계 인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는 현실에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로스쿨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들을 실무계에서 받아들여 좀더 훌륭한 실무가 나아가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이 그렇듯이 로스쿨도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하는 곳이지 법률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다.

전문가를 배출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는 바로 사회이다. 로스쿨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최소 10여년 이상 종사해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불행하지만 이미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로스쿨의 교육을 좌우하게 된다. 입학시험이 있는 제도하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이 선발 시험이 되는 제도하에서는 변호사시험 위주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어렵고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법학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도할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어야 한다.

과거 법학교수들이 학생들이 대학강의를 잘 듣지 않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것을 개탄하곤 했다.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자는 신림동강사들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출제하는 바로 그 시험문제로 인해 학생들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예컨대 사법시험 객관식문제의 경우 1분 45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1분 정도에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대로 읽으려면 읽는 데만도 5분은 걸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영희, 철수 등 초등학교 시험문제에서나 나와야 될 인물들이 사법시험 문제에 등장하였다.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고 간단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를 읽다가 헛갈리고 그리하여 법학의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영희, 철수를 혼동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교수들 스스로 출제를 잘못 하고 사회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모든 책임이 출제교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1차적 책임이 출제교수들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시험문제가 너무 길다. 모든 로스쿨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시간에 8절지 2,3면 정도의 문제를 푸는 시험방식으로 실력을 측정받았고, 그러한 방식의 시험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사법시험 문제를 닮아가는지 변호사시험의 객관식시험문제의 경우 그 양이 고등학교 때의 시험문제보다 적어도 4, 5배는 많다. 예를 들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객관식 시험문제의 총 글자수는 28,312자이다. 문서정보에는 200자 원고지로는 110매 정도로 되어 있지만, 네모칸을 모두 제거하면 200자 원고지 160매에 이른다(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글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200자 원고지로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 1쪽의 내용이 200자 원고지로 5매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70분 동안 읽어야 할 내용이 교과서 30쪽 가량의 분량이 된다. 70분 동안에 소설도 아니고 교과서 30쪽 분량의 - 경우에 따라서 '아'와 '어'가 다르고 'A범죄가 성립한다'와 'A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표현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시험문제를 제대로 읽기는 어렵다.

아무리 시험을 위한 몸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나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수험생도 알고 출제하지 않는 교수나 실무자들도 하는데, 출제자 교수들과 실무자들만이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그러한 무모한 출제를 감행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분량의 절반 내지 3분의 1정도로 문제분량을 축소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이 속도시험이 아니라 법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하므로, 출제를 잘 하면 이런 정도의 분량으로도 얼마든지 변별력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못한다면 그것은 출제자의 요약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형 제17번 문제이다.



문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1>
 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다.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보기2>
 A.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B. 일종의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C.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한다.

<보기3>
 a.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b.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c. 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가-A-a, 나-B-b, 다-C-c
 ② 가-B-b, 나-A-c, 다-C-a
 ③ 가-B-c, 나-A-a, 다-C-b
 ④ 가-C-b, 나-A-a, 다-B-c
 ⑤ 가-C-a, 나-A-b, 다-B-c

이 문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결과실현행위시설은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 즉, 결과실현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그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결과실현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다. 일반범죄에서도 행위자는 반무의식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도 한 근거로 제시된다. 원인행위시설은 책임능력이 있는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의 사회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신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해하는 입장도 원인행위시설에 가깝다” 하는 정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제17번 문제는 지문을 연결하는 데에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혹시 실수가 없을까 하며 신중하게 연결하다가는 10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보기 1, 2, 3의 연결과정을 실수하여 답을 틀리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해서는 안된다. 변호사시험문제가 보기 간 연결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문제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분명하지만 옳고 그름을 시험하는 지문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출제자의 책임이고, 출제자의 표현능력 부족 때문이다. 이 문제는 뭔가 출제에 성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이지만, 잘못된 성실성은 사회에 기여를 하기 보다는 해악을 끼친다. 시험문제의 질문은 돌려서 하면 안되고 직접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하면 족할 것이다. (뒷 페이지)

이 문제에서 지문 ④는 판례가 따르는 법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은 답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례들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사례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①,②,③,⑤번 지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복수정답 시비를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위 지문들에서 제시한 판례들 중 ⑤번 지문의 것을 제외하면 모범적이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선례라고 할만한 판례들도 아니다. 제15번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준에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매우 무책임하고 로스쿨 법학교육을 망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례들은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판례집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은 필자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출제해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제 로스쿨의 법학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을 생각해본다. 쉽게는 현실세계에서 어느 법률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한 시간 동안에 법전 하나만을 참고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아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하고, 시간도 충분히 할애해야 할 것이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능력이고, 적절한 참고자료를 찾는 것도 능력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후자가 아닌 전자의 방식을 요구한다.

문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결과실현행위시설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결과실현행위시설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사회적 정형성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③ 원인행위시설은 일반 범죄에서도 행위자가 고도의 흥분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든다.
- ④ 자신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해하는 견해는 결과실현행위시설보다는 원인행위시설에 가깝다.
- ⑤ 원인행위시설은 원인행위와 결과실현행위가 불가분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찾는다.
특히 다음의 제15번 문제는 출제자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문 1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자신의 부(父) 乙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현실세계에서의 미덕이 시험에서는 부정행위이다. 현실이 이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도 전자를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다만 아닌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의 출제를 지양하고, 법적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의 출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암기식 문제는 기본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구구단을 암기해야 하듯이 법학에서도 암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암기식 문제는 기본적 이론과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례들의 논리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 특히, 별로 모범적이 아니고 별 이론적 가치도 없는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된다.

둘째,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붙은 문제들의 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 이론들의 내용과 사례에의 적용을 묻는 문제들을 출제해야 한다. 판례도 이 판례, 저 판례 따구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본적인 판례의 논리를 묻는 문제들을 출제해야 한다. 출제분야도 지엽적이 아닌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수험생들이 맞하기를 기대하며 출제해야 하고 틀리기를 기대하며 출제해서는 안된다.

틀리기를 기대하며 출제하게 되면 필요없는 함정을 파놓게 되고, 이에 따라 문제가 졸렬해질 뿐만 아니라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수험생들의 60% 정도가 맞힐 수 있는 문제로 40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별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5%~10% 정도가 만점을 맞는 문제로 출제해서 안될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틀리는 데에서가 아니라 맞는 데에서 희열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 출제방식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3, 4년간 동일한 출제자들이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를 조정하고, 바람직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매년 출제위원들이 바뀌는 방식에서는 늘 어깨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간 초보출제자들이 출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책임있는 출제나 방향설정이 어렵고, 올해에 나타난 출제상의 문제점을 다음 해의 출제에서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자신의 출제가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좌우하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아집을 버리고 무엇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학회에서도 시험문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올바른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학연구도 중요하지만 법학교육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만, 각 학회에서도 후자에 대해 필요한만큼의 연구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창**

뜨거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학생들과 교수진의 열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지역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고'라는 수식어에 부족함이 없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교기(校旗)에는 월계수 잎이 그려져 있다. 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승리, 그리고 영광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인터뷰를 위해 맹수석 원장을 찾았을 때, 그는 건물 옆 월계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대학 졸업생이 기증한 나무예요. 졸업한 후에도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그의 웃음에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듬뿍 담겨있었다. editor. 박소희

인근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충남대학교 법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자평한다면.

다른 법전원과 대동소이하겠으나, 교수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실력 있는 법조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에 부응해서 우리 학생들도 교수진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또 지금까지 1기에서 3기까지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로클릭과 감사의 배출이 전국 상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방법 등을 전수하기도 한다.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이 입주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전정부종합청사·대덕R&D특

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양한 법률수요를 창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특장(特長)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인근에 훌륭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법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을 특성화로 정한 까닭도 지역적 특성과 연관되나.

그렇다. 우리 법전원은 타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적재산권법을 특성화로 정했다. 결과적으로 충남대학교 법전원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외국 실무진 학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법전원이 타 법전원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아주 저렴한 학비를 자랑한다. 또 장학금 전액기준 30% 이상 지급, 희망자 전원 기숙사 입실, 1인 1석 열람실 제공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우리 법전원은 인근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변협 등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

충남대학교 법전원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충남대학교 법전원의 교육 목표는 '지역 봉사,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국가전략영역개발'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에 위치한 거점국립대학 법전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덕R&D특구 등 지역적 인프라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법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함에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나.

우리 학교의 개교 초기 개설한 법률상담소는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해왔다. 대전, 충남 지역의 농어촌 무료 법률 상담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활동도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아 향후 이를 정례화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눈에 띈다.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익인권법학회'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근로관계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회가 있다. 학회 뿐만 아니라 '굿피플'이라는 순수 봉사 동호회를 비롯해, 야구, 축구, 격투기 동호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함몰되지 않도록 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활성화 되다보니, 이를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모의세계검찰총장회의 1위 수상, WTO/FTA 모의재판대회 대상과 같은 수상의 결과도 모두 자치활동과 연계해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방학 기간 동안 해외 자매 대학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견학과 시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 기관의 견학은 물론이고 법률 사무소에서 실무 수습도 할 수 있다. 우리 충남대학교 법전원은 미국의 보스턴대학, 일본의 오사카대학, 중국의 충칭대학 등과 결연을 맺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이 단순히 견학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법률적 실력을 쌓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길 바라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인재를 원한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튼튼히 쌓은 학생이면 좋겠다. 특히 법조인은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전제는 '정의'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또한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이면 좋겠다. 그런 학생이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지역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가 모두 서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다. 물론 우려가 많았지만, 충남대학교 법전원의 졸업생들이 지역 사회로 많이 배출된 이후로는 그런 우려들이 불식됐다.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대전 시청, 세종 시청, 서산 시청, 대덕 특구 등 지자체의 법무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다. 또 인근에 특허법무법인을 세워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졸업생도 있다. 우리 법전원의 설립 자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졸업 후에도 상당수가 대전 등의 지역에서 개업하거나 취업한 후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법전원에서 '중소기업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졸업생들이 지역의 법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원장으로서 고민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고, 그 결과로 법전원 제도가 출범했다. 양성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교수의 정원(TO)도 주지 않은 채, 정부는 각 학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법전원을 운영하다 보니 많은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귀족 로스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학교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실력', 특히 '합격'을 강

요하다보니 인간적 측면에서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 측면에서 합격률 고정화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대학교 법전원의 향후 발전 방향은.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발전도 함께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범국가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앞서 밝혔지만, 우리 법전원 인근에는 세종시 정부 청사를 비롯한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더 스킨십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와 많이 인접해 있어, 국가 정책, 공공 법무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덧붙여 교수-지역전문가-졸업생-재학생이 함께 모여 학문적인 문제를 비롯해, 지역 문제, 특수 분야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지역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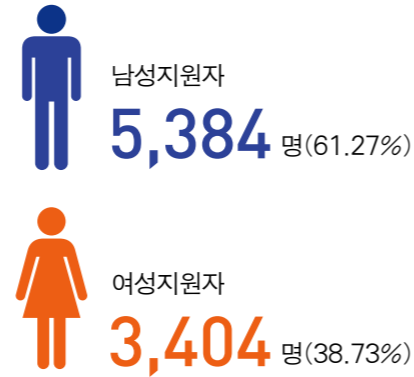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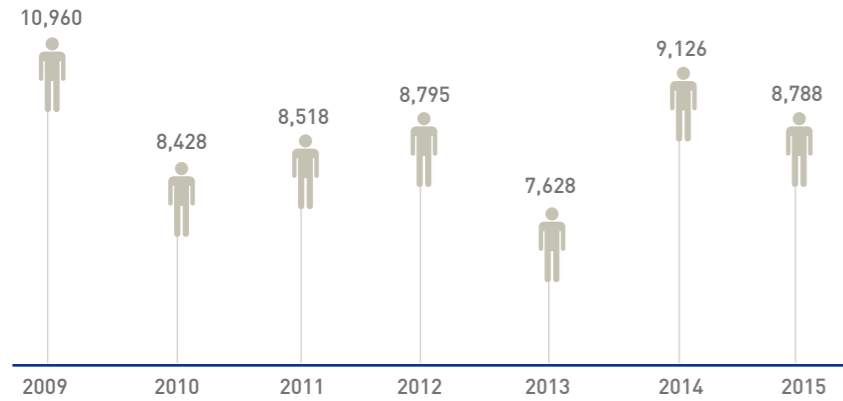
- 현대식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복지제도 완비
웰빙형 전용 기숙시설 완비 / 충남대학교 병원 진료비 30% 감면(본인부담금 기준)
-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저의 교육비
- 전국 국립대 중 최고수준의 장학금 지급률
-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등 11명의 다양한 실무경력의 교수진 확보 / 각 전공분야별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26개 전공심화과목 개설
- 헌법재판소, 특허법원, 특허청, 김&장 법률사무소 등 120여 개 기관과 실습과정을 위한 협약 체결

통계로 보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마감현황

6월 30일(월)부터 7월 10일(목)까지 약 열흘간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됐다.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최종 원서접수 인원은 전년(9,126명)보다 338명(3.70%) 감소한 8,788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접수 인원이다. 그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시험부터 실시하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244명(2.7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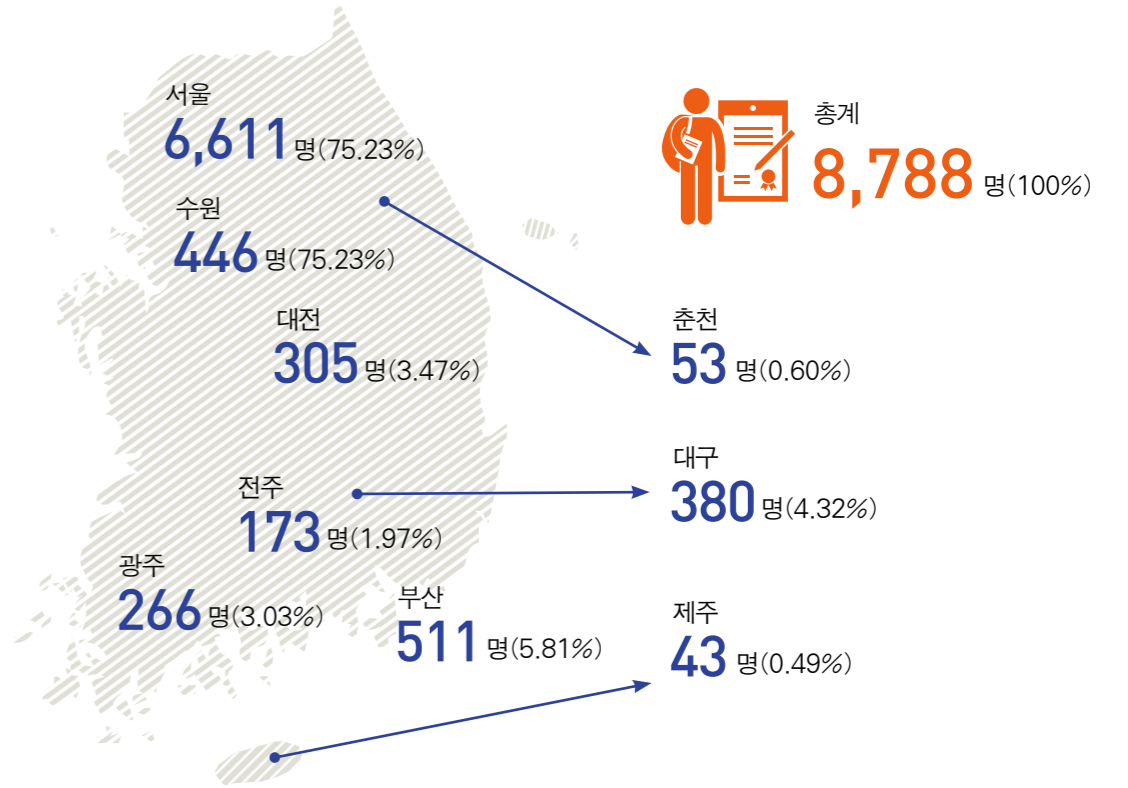
역대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그래프



계열별 현황

전공계열	전체		남자		여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공 학	592	6.74	476	8.84	116	3.41
농 학	30	0.34	24	0.45	6	0.18
법 학	3,958	45.04	2,623	48.72	1,335	39.22
사 범	179	2.04	77	1.43	102	3.00
사 회	1,080	12.29	581	10.79	499	14.66
상 경	1,236	14.06	774	14.38	462	13.57
신 학	25	0.28	18	0.33	7	0.21
약 학	49	0.56	23	0.43	26	0.76
예 체 능	73	0.83	30	0.56	43	1.26
의 학	54	0.61	34	0.63	20	0.59
인 문	1,074	12.22	498	9.25	576	16.92
자 연	242	2.75	132	2.45	110	3.23
기 타	196	2.23	94	1.75	102	3.00
총 계	8,788	100	5,384	100	3,404	100

시험지구별 현황



졸업연도별 현황

졸업연도	전체		남자		여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15 ~	2,974	33.84	1,792	33.28	1,182	34.72
2014	1,180	13.43	679	12.61	501	14.72
2013	838	9.54	489	9.08	349	10.25
2012	693	7.89	373	6.93	320	9.40
2011	568	6.46	345	6.41	223	6.55
2010	419	4.77	267	4.96	152	4.47
2000~2009	1,795	20.43	1,200	22.29	595	17.48
~1999	321	3.64	239	4.44	82	2.41
총 계	8,788	100	5,384	100	3,4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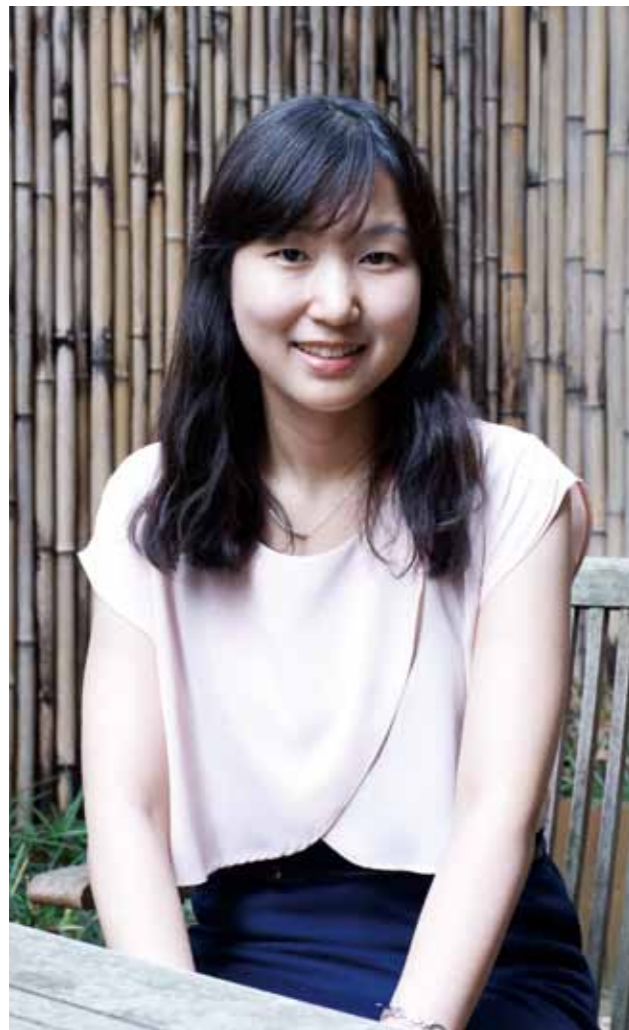
연령별 지원현황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5세 미만	1,060	12.06	330	6.13	730	21.45
25세 이상 30세 미만	4,335	49.33	2,573	47.79	1,762	51.76
30세 이상 35세 미만	2,059	23.43	1,435	26.65	624	18.33
35세 이상 40세 미만	801	9.11	607	11.27	194	5.70
40세 이상 45세 미만	365	4.15	293	5.44	72	2.12
45세 이상 50세 미만	122	1.39	107	1.99	15	0.44
50세 이상	46	0.52	39	0.72	7	0.21
총 계	8,788	100	5,384	100	3,404	100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나현 학생. 변호사 시험을 앞둔 그녀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해 더 진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차분하고 툭툭하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다. editor. 박소희

“ 당장 눈앞에 놓인 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크게 봐야 해요”

서울대 로스쿨 4기 이나현 학생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법조인이나 기자가 되고 싶었다.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찾아서 뿌리 뽑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다. 당시 어린 눈으로 본 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논쟁이 많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상승하면서 어수선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개인의 권리 의식만큼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학부 1,2학년 때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괜찮게 나오기에,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도 어려워지고 슬럼프도 찾아왔다. 방향하던 찰나에 '언론법'에 관심이 생겨, 언론법과 관련된 수업도 듣고 책도 많이 읽었다. 그때 든 생각이 한동안 언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언론법을 공부하면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미디어법학회 회장을 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도교수님 세 분을 모셔서 좋은 강의도 많이 들었다. 교수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인턴 실습 기회도 마련해 주셨다. 로스쿨 입학 전에도 언론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디어법학회 회장을 맡았을 때에도 즐겁게 임했다. 또 로스쿨 합창반도 기억에 남는다. 합창반에서는 로스쿨 재학·졸업생들 중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 축가를 불러주는데, 공부 이외의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3년간의 로스쿨 기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험기간이 아닐 때에도 시험기간처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잘 보내는 것이다. 물론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도 아니라 잘 못했다.(웃음) 로스쿨에서 하는 공부는 양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다. 벼락치기로 공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미리 꾸준히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제대로 답을 쓰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아닐 때에도 계속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을 반추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대에서 나를 뽑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반성도 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또 당장 눈앞에 놓인 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크게 봐야 한다. 뜻대로 안될 때가 있지만, '내가 고자 하는 곳에서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 사람을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금방 극복하고 다음 기회를 찾게 된다. 크게 봐야 한다.

국내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형로펌에 채용이

확정됐다고 들었다.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나.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 말이다. 교수님들께서 '유능한 법률가가 가장 훌륭한 법률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인격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고, 공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교수님들과 동기들, 나를 뽑아준 조직에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 **창**

서울대 로스쿨 이나현이 말한다! 로스쿨 입학 노하우



기출문제, 스톱워치, 친구만 있다면 리트 준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 위주로 준비했다. 혼자서 기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푸는 등, 스스로에게 지꾸만 타협하게 된다. 그러니 친구 한 명과 함께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차분하게 푸는 것이 좋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필요도 없다. 친구와 시간을 맞춰서 풀면, 아무래도 페이스 조절에도움이 된다.



평소에 같고 닮은 기본적인 소양이 면접 때 발휘 돼

학부 시절 법학 과목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수강했다. 특히 <말하기 수업>과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라는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라는 수업에서는 고전을 발췌해서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본 후 토론을 하기도 했었다.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들이 면접볼 때 많은 영향을 준다. 나도 서울대 로스쿨 면접 당시, 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배경지식 삼아서 이야기 했었다.

학부 4년 동안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과목을 열심히 듣는 것이 좋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서울대 로스쿨 면접의 문제는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교수님들의 압박 면접도 있기 때문에, 순발력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본적인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 나를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법원 ”

서울고등법원 김송 재판연구원(한양대 로스쿨 출신)

김송 재판연구원이 말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지만, 무엇이 되고자 예측하면서 걸어온 길은 아니라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 자체였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송 재판연구원을 만났다. editor 박소희

로스쿨은 우연이 아닌 필연

서울과학교, 카이스트 물리학 전공,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모 방송국 기자- 언뜻 듣기에도 엘리트 코스만을 걸어온 그녀가 갑자기 로스쿨 진학을 선택한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졌어요. 내가 이걸 정말로 알고 쓰는 건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가령 화재 현장에 취재를 나가면 소방관 계법령을 보고 위반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 법을 모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마침 로스쿨이 생겼고, 법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진학하게 된 거죠.” 로스쿨 진학을 결정한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에 잡히는 책은 무조건 읽는 것이었다. 이공계 출신의 그녀에게 철학서, 인문서, 소설 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과서가 됐다. 법학과는 전혀 무관한 학문을 전공한 탓에 로스쿨 진학에 대한 압박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겠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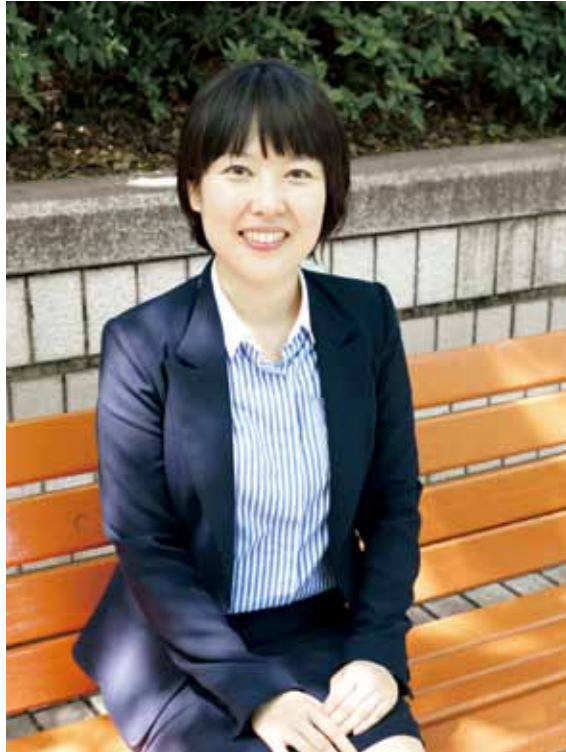
“많이 긴장했죠.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기 전부터 친구들과 법학 스터디를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건 아마 두려움의 건전한 발로였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합격한 분들의 수기를 찾아봤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격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어요. 슬럼프가 와도 책상에서 놀고, 책상에서 자야 한다고.(웃음)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자!’ 로스쿨 입학에 대한 두려움이 ‘각오’로 표출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긴장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법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거나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법학’은 단순히 어렵거나 난해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학부시절 전공한 ‘물리학’과 그녀를 기자로 이끌었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접목되는 지점이 바로 ‘법학’이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성찰은 그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녀는 판례도 사람 사는 이야기라며, 법이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로스쿨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학교, 당연히 우리학교죠.

3년간의 로스쿨 생활에 대해 묻자 김송 재판연구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대답한다. 지금의 로스쿨 학생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공부를 하던 때에는 그래도 ‘낭만’이란 게 존재했다고. 매일 같이 수업을 듣고, 밥을 먹으니 정이 드는 건 기본, 열린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훌륭한 동기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단 한 수업도





66
 이 과정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학점 B 받을 걸,
 C 받았다고 인생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넓게 보는 연습을 했어요.
 99

감탄하지 않았던 수업이 없을 정도예요. 들은 수업마다 주옥같은 수업이어서 애교심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사실 로스쿨은 다른 학부,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학교'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학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저에게 '우리학교'는 한양대학교예요."

로스쿨 입학 준비하면서부터 로스쿨과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으니, 바로 '학점'이었다. '의도치 않게'라고 덧붙이며 겸손하게 말을 시작하는 그녀다.

"의도치 않게 1학년 때 학점이 잘 나왔어요. 처음부터 성적이 잘 나오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학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자체도 스트레스였지만, 옆에 친구를 견제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성적에 얽매이기 보다는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는 것들은 100% 소화하자,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나가자!' 라는 나와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한 거죠. 사실 로스쿨에 있으면 자꾸 갇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과정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학점 B 받을 걸, C 받았다고 인생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넓게 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체 힐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던 그녀가 다양한 법조 직역 중 재판연구원으로 마음을 굳힌 까닭이 궁금해졌다.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은 따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조직의 톱니바퀴 아

래에서는 능력을 펼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하게도 2학년 여름, 한 로펌에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고, 딱히 법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법원 심화실무실습을 신청했거든요. 막상 법원을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딱 막히거나 삭막하지는 않았어요. 일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로펌과는 다르게 따뜻한 매력도 있었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녀는 로펌이 아닌 법원으로 향한다. 법원의 매력적인 요소에 흠뻑 빠졌던 까닭이기도 하고, 법원에 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법원

외부에서 볼 때 법원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곳인데, 실제로도 그런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법원은 절대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답한다. "법원은 엄숙하기는 하지만 결코 무섭거나 딱딱한 곳은 아니에요. 법원 안에 계신 분들, 특히 판사님들은 아마 어느 직장에 계신 분들보다 유연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법정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엄숙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정말 순수하시고 가장 때묻지 않은 분들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판사님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이예요. 보통 50살 정도 되면 다른 직역에서는 관리자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두 초심을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매일매일 기록을 보고, 밤잠을 설치면서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 있으면 제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아요. 제가 법원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면서도 성실한 분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법원이예요!"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 그녀가 얼마나 그녀의 직장을 사랑하고,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났다. 그녀에게 재판연구원이라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물었더니 줄곧 그랬듯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재판연구원은 재판 업무를 보조하고 연구하는 직역이예요. 법원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겠지만, 주로 재판부에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역할과 판결문의 초고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재판부 연구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판결 초고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훌륭한 부장판사님들을 만나서, 판결 초고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재판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은 연구원을 거쳐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 일과를 묻자 그녀가 답한다. 겉모습은 아주 정적이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 매일 매일이 비슷한 하루지만, 대부분 기록을 읽고 야근을 하면서까지 읽고 또 읽는 하루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힘든 점도 있죠. 어떻게 재미있기만 하겠어요. 저는 워낙에 상사 복이 많아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예요. 법원 일이라는 게 딱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만만하게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기록이 정말 많아요. '베일에 가려진 진실이 무엇일까?' 고민하다보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록을 1번 볼 때랑 3~4번 볼 때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세련되지 못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지상과제처럼 느껴져요.(웃음)"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있는 법조인으로

작은 체구에 수줍음 가득한 웃음. 김송 재판연구원에게 법조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지 묻자, 화들짝 놀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겸손함의 미덕까지 갖춘 그녀는 스스로 갖춰야겠다고 다짐했던 마인드를 대신 말해주겠다고 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애정, 열정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동력인거

죠. 특별한 스킬보다는 끊임없이 궁금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모든 법은 인간의 관찰을 토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의 의미와 분쟁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이 만든 세상에 대한 관심, 애정,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애정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재판연구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연구원을 아직 준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재판연구원이 참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꼭 판사 임관이 아니더라도, 법조계 첫 경력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데에는 법원만한 곳이 없거든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넓은 안목이 필요해요. 너무 알파카게 공부하지 말되,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해요. 1,2학년 때에는 민사, 형사 기본 법리를 많이 습득하고, 3학년 때는 무한 반복해서 풀어야 해요. 모의기록이나 모범검토포고서를 계속 따라서 써보는 거죠. 사실 산수에 더 가까워요. 무수한 계산 문제를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푸는지 보겠다는 의도거든요. 법원에서는 정확하고 실수 없이 결론을 내리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해요. 깊은 이해 능력은 법원에 왔을 때 더 빛을 발할 것이고, 우선은 기본 능력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꾸준한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줄 만큼 마음이 따뜻한 김송 재판연구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밝게 웃으며, 단 한번도 3년 후의 일을 예측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지금보다는 더 초연한 마음을 가진, 욕심이 적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인다. 그녀의 꿈은 그녀만큼 작하다. **창**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우리 전남대 리걸클리닉 멋지죠?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봉사 클럽 <서로>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의 분위기가 유독 좋은 까닭도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리걸클리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화창한 오후, 리걸클리닉을 이끄는 김태봉 교수와 두 명의 공익인권 수호천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봤다. editor. 박소희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김태봉 우리학교는 1981년 법과대학 시절부터 법률 상담소가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세워졌고, 임상 실습과 실무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김태봉 우리 리걸클리닉은 법률 상담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 클리닉’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법률 상담에 관한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담 클리닉은 수강생들이 변호사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서면도 받고, 같이 법정에서 나가서 현장도 볼 수 있는 수업이다. 수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리걸클리닉에서는 전문적인 강사의 위촉, 특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익 소송 활동’이다. 장애인, 이주 노동자, 유학생과 같이 소외된 약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소송 수행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연구해 가면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김태봉 리걸클리닉을 통해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3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상담, 내용 청취, 법리 검토, 답변 준비 등을 진행한다. 이때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법률 상담위원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나

김태봉 한 학기에 한 번 리걸클리닉 봉사자를 모집한다. 요즘에는 <서로>라는 봉사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봉사를 해주고 있다.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김태봉 첫째는 봉사클럽 <서로>와의 연계성을 들 수 있다. 우리 리걸클리닉은 봉사클럽 <서로>와 상호 협력하는 끈끈한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이 바쁜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리걸클리닉 활동 뿐만 아니라 YMCA 등 외부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단체에 법률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색하는 등 외부 단체



CNU LAW SCHOOL LEGAL CLINIC

들과의 교류를 직접 발 벗고 찾아 나설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전남대 리걸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점은 책자 발간이다. 리걸클리닉에서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돕는 가이드 북(달리는 꿈)을 발간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인데, 이것을 리걸클리닉에서 지원·제작했다. 특히 권리뿐만 아니라, 배달 시 지켜야 할 질서나 의무에 대해서도 적혀 있기 때문에 알찬 내용이라고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걸클리닉은 법률 상담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 학교 행정에 대한 고문도 전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겼었지만, 최근에는 리걸클리닉에서 만든 ‘법률 지원단’ 교수들이 학교 본부로 출장 상담을 가고 있다. 이는 우리 리걸클리닉이 이뤄낸 성과 중 하나이다.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나

김태봉 어려운 점이 많다. 송무 수행이 가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 교내에 변호사 출신 교수가 13명 있지만, 실제로 많은 활동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전담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변호사의 활동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학교 본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학교 성적에 너무 매몰되다보니 리걸클리닉 활동이나 실무 위주의 교육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남대학교 법전원은 ‘서로’라는 봉사클럽이 있어서 리걸클리닉이 활성화 됐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준비와 성적 관리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변호사가 양성이 되려면 훌륭한 변호사를 옆에서 보고 거기서 법률적 기술과 소양을 배워야 하는데, 시험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안타깝다.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김태봉 리걸클리닉 센터는 의과대학으로 치면 ‘대학병원’에 속하는, 임상실습의 장(場)이다. 정책적인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전원에 재직중인 변호사 출신 교수는(공익 소송에 한해서라도)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의 대학병원에 비견할 만한 임상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의 향후 운영 방향은

김태봉 전남대학교 법전원은 ‘공익 인권’을 특성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익 인권’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구조 활동, 상담, 공익 소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또 앉아서 기다리는 법률 서비스가 아닌,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봉사를 통해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

리걸클리닉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김현지 우리 법전원의 특성화 영역이 '공익인권'이다.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 예상보다 공익인권을 위해 진학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 변시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주저하기 마련인데, 리걸클리닉 활동이나 '서로' 봉사클럽은 지원자가 많아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 만큼 희망자가 많았다.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공익인권에 대해 열려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리걸클리닉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법률상담 클리닉' 수업을 들었다

김현지 리걸클리닉 수업은 인기가 많아서 감히 1학년 때는 들을 생각도 못했다. 2학년 수강신청 때 성공했는데, 그것도 1순위로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변호사의 수업을 듣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일종의 갈급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YMCA나 이주여성센터에 봉사활동을 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이승연 양쪽 다 기본적으로는 방문하거나 전화를 주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YMCA는 =임대차, 매매, 교통사고 같이 사소한 생활 분

쟁이 주를 이룬다. 반면 이주여성센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비자, 이혼, 노동 관련, 난민들 보호에 대한 법률 상담을 주로 진행한다.

김현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YMCA는, YMCA 신입 변호인단과 서로의 학생이 멘토-멘티의 관계를 이어간다. YMCA 신입 변호인단 사무실에 가서 지도도 받고, 상담 내용도 물어보는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봉사활동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나

김현지 YMCA와 NGO 센터는 봉사자만 바뀔 뿐 매일 매일 센터로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이주여성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YMCA는 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지만, 이주여성센터는 경우에 따라서 소장물 작성하는 업무도 한다. 학년에 따라서 맡은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한 번 방문하면 평균 2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온다.

이승연 보통 자신의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다녀온다. 센터의 위치가 학교에서 30~40분은 걸려서, 사실 몸도 힘들고 학업에 부담도 느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소될 만큼 보람이 있다.

어떤 보람이 있나

이승연 상담 전화를 직접 받아보면, 의뢰인들이 다급해하는 목소리가 느껴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찾아보고, 변호사님들에게 확인 상담도 한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면 의뢰인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한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보람되고 좋다.

좌 이승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가운데 김태봉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 김현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김현지 처음 봉사를 시작하면, 선배님들이 첫날만 YMCA에 데려다 준다. 그리고 끝이다. 물론 기본적인 메뉴얼은 알려주지만 전화기 앞에 앉아있으면 전화가 울까봐 두근두근 거린다. 법을 전공하긴 했지만 실무적인 일을 해보진 않았으니 떨리는 거다. 하지만 요즘은 신기하게도 그런 두려움들이 없어졌다.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봉사 활동을 통해 한 뼉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 또 학교생활이 굉장히 바쁨에도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평적이고 주도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봉사를 하다보면 변호인으로서 첫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들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

외부의 공신력 있는 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

김현지 우리 리걸클리닉처럼 공신력 있는 단체와 교류를 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마 없지 않을까? 다른 법전원 친구들에게 직접 외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갖게 됐냐고 많이 부러워한다. YMCA, 이주여성센터는 '서로' 3기 선배들이 도움을 드릴 일이 없냐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계 된 기회이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

이승연 내가 받았던 상담은 다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할아버지께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던 상담이 기억에 남는다. 법을 공부한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나 단어가 아닌데, 일반인은 어렵게 느낀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법률 용어가 쉬워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김현지 YMCA에서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률적 해결보다는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YMCA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 어떤 의뢰인의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들어준 기억이 있다. 상담이 끝나고 가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다. 변호사는 해결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들어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면서 안 좋은 점도 있나

김현지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압박이



심한 편이다. 로스쿨에 들어와 보니까 로스쿨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다. 실무실습과 연계도 잘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교육이나 실습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이런 혜택들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문제 아닌가?

리걸클리닉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김현지 '신념'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내 안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승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법률가였는데,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 어떤 법률가가 될지, 그러려면 뭘 다듬어야 할지,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창**

지금 우리 로스쿨은 ; 재학생의 시각에서 본 로스쿨

전남대학교 로스쿨 5기 이대일

66

한발 한발 부단히 정진하여,
공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로스쿨 사람들이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 발표

지난 2014년 3월 31일 과천집회에도 불구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550명이었습니다. 당초 1700명 선까지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 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아직 쉽게 말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향후 사법시험 인원 감축 및 폐지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선뜻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서서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지난 5월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택과목, 특성화 과목 기피현상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충실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수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실력이 향상됐는데도 정원제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점, 시험 위주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 학사관리 이후 유급, 졸업 탈락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이번 법무부의 1550명 합격자수 발표와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합리화 방안 바람직하나 여전히 문제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기존의 학사 엄정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학생협의회 공식 입장에 따르면,

i) 그동안 시행하고 있었던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며, ii) 학사관리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iii)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이번에 개선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필수과목의 성적 부여 방식에서도 여전히 교수의 재량이 존재한다는 점, 선택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5%이지만 이것도 역시 재량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급기준만 2.0에서 2.2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 일단 환영의 목소리

재학생들은 2014년도 2학기부터 반영하게 될 (일부 대학은 2014년도 1학기부터 바로 시행) 이와 같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분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 학사관리 엄정화 제도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기형적으로 과도한 경쟁만을 부추겼던 학사 엄정화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했습니다. 동기간에 불필요한 경쟁심리가 작동하고, 패배자는 낙오시키는 제도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적대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학사 엄정화가 좋은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채점 시비로 인한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으며, 줄 세우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데도 등수를 촛촛히 매기는 것은 연구시간 확보에도 큰 방해가 되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몇몇 로스쿨은 2014년도 2학기가 아닌 2014년도 1학기부터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2학기부터 시행하게 될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지적하기도 합니다. 1학기부터 시행한 학교라면 같은 기수라도 기수 내에서 학점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낼 텐데, 이는 향후 취업시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수별로 서로 다른 학사 엄정화 시행에 따른 학점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지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로스쿨에서의 학점의 중요성은 점차 퇴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로스쿨 재학생들, 의연함 잃지 말아야

어쨌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사 엄정화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될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번 합리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의연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배워서 갔느냐를 더 중시해서 수강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충분히 배울 가치가 없는 과목이라면, 학점을 잘 준다면 수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는 과목이라면, 학점을 어떻게 받든 수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성화 과목 기피현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은 바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재학생들은 수강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험 따로, 변호사시험 따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기적 연관성을 생각하여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학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공부 시간 확보는 어려우므로 교재 선정부터 학습까지 변호사시험 적합성을 염두하고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대로 고정된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어떻게 변경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단 한발 한발 부단히 정진하여, 공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로스쿨 사람들이 모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



영화 <변호인>과 드라마 <개과천선>을 통해 본 예비 법조인의 갈 길

아주대학교 로스쿨 6기 유혜진

6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99

로스쿨에 합격하고 법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선행학습을 시작할 무렵, 우연히 보게 된 영화 <변호인>은 나에게 법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막연하고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법, 두껍고 한자가 가득해 낯설었던 법전(法典)의 위용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겨울, 내 가슴을 치는 쇠망치 같은 영화 속 대사들은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결정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의 다짐이 되었다.

이처럼 최근 법조인이나 법리적 문제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와 영화가 부쩍 늘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영화 <7번방의 선물>, <공범> 등이 그 예이다. 과거에도 법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악역으로 묘사하는 등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경우 카타르시스를 주며 대중의 불만을 배출하는 기능은 있으나, 법조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결여되어 건설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바뀌고 있다는 평이다. 드라마, 영화 제작진들도 법조인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법조인들 역시 조언을 통해 법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도록 우호적으로 나서면서, 문화계의 법 소재 작품 증가가 탄력을 받는 것이다.

영화 <변호인>으로 뜨거워진 예비 법조인 마음, 드라마 <개과천선>에서는?

시청률에서는 다소 부진했으나, 명품배우들의 열연과 작가 및 제작진의 날카로운 묘사로 호평을 받으며 법조계를 다각도로 그려낸 작품으로는 드라마 <개과천선>도 있다. 김명민은 기억상실에 걸린 변호사 김석주를 통해 인격이 다른 두 사



*honorary
Journalist*



람의 모습을 완벽히 연기했고,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로 쌓은 진지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냉철하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대형로펌 대표 차영우를 연기했다. 최희라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은 법률자문과 상당한 수준의 고증을 통해 현실적인 법조 현실을 그려냈다. 그런데 사실 드라마 <개과천선>을 보고 있으면, 영화 <변호인>을 볼 때와 달리,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법조계의 현실은 상당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드라마가 다룬 소송 소재는 모두 실제 사건을 연상시킨다. 초반부 김석주는 조선회사 편에 서서 연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증거도 없으니 요구 보상금액의 5%에 합의하라”고 압박한다. 2007년 서해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삼성 허베이스퍼리트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서 가져온 이야기다. 연예인 스폰서 성폭행 사건, 대기업과 금융 자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위험한 투자상품을 판매해 벌어진 소송이 차례로 소개됐다.


특히 후반부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킨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를 다룬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도 치열한 법리싸움을 펼치다 결국 대법원에서 은행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실은 더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달랑 한 장짜리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통지로 허무하게 종결된 것이다. 한 현직변호사는 <개과천선>에서 대형 로펌 대표가 검찰과 법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장면은 과도할 수도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를 펼쳐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장면은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업과 금융 관련 사건은 전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어쩌면 1970년대보다 각박한 2014년 법조계 현실, 로스쿨 생의 갈 길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던 1970년대보다 드라마 <개과천선>의 배경인 2014년의 법조 현실이 더 녹녹치 않을지도 모른다.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이 맞서 싸운 현실은 ‘공안정국’이라는 반민주적인 실체가 분명하다. 그러나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변호사 김석주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법원보다 더 힘 있다는 대형 로펌과 금융자본이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대원칙 하에서 이뤄지며,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대형로펌 역시 의뢰인에게 충실하다는 점에서 투철한 직업정신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어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보니, 비판의 날이 무더질 가능성이 크다. 드라마 마지막 회쯤 대형로펌의 대표 차영우(김상중 분)는 자신의 변호사를 설파한다. 그는 변호사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로비스트라 생각한다.

법정에서 법리 싸움하는 건 변호사가 하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사건의 잘잘못을 따져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각종 로비를 통해 오히려 사건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한다. 법원 인사조직을 건드리기도 하고, 검사와 법원사무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기각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대법관들조차도 대형로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김석주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던 시절보다도 외부 눈치를 보는 대법원에 대해, “그때만 해도 개업하면 아쉬울 것 없이 돈을 벌었으니까요. 개업해도 예전 같지 않으니 거대로펌 들어가고 싶어 하고. 미래의 취업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예요”라며 씩씩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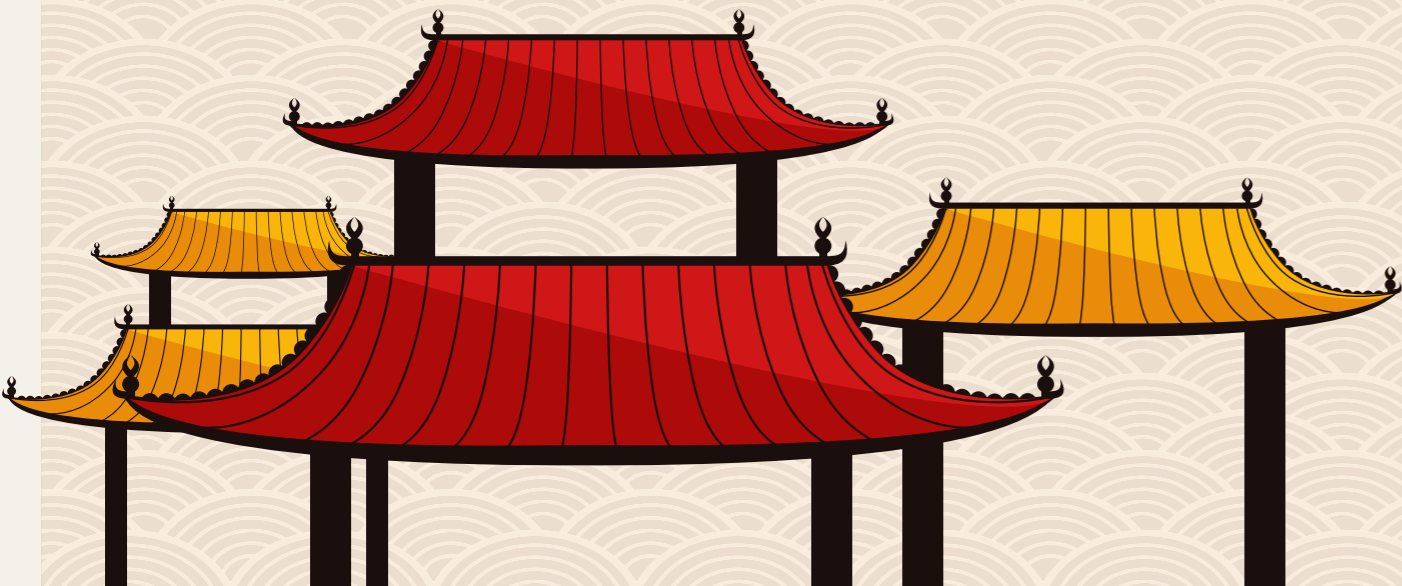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본다. 어쩌면 드라마 <개과천선>은 바야흐로 매년 로스쿨을 통해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누구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법조계의 쓸쓸한 자화상이다. 오직 법의 길만 치열하게 파온 대법관조차도 불안정한 현실에서 나는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가. 현실의 벽은 만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변호인>이든 <개과천선>이든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있다. 법조인은 돈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되며, 이 사회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받도록 힘써야 하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도 ‘살아 있는 법’을 통해 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것 말이다.

드라마 <개과천선> 주인공 석주의 이름은 돌 석(石) 자에 기둥 주(柱), 법조계의 돌기둥이 되길 바라며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리고 지금, 예비 법조인인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석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지는 않은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일본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일본은 한국보다 5년
빠른 2004년, 미국의 로스쿨을 롤모델로 해서
'법과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본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며,
1997년 2만 명이었던 법조인의 수를 2018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1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

▶ 일본의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개념이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습득하게 하며, 풍부한 인간성 함양, 전문적 법지식 습득,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윤리의식의 함양과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연수소에서 1년 6개월간 수습을 거친 뒤 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부터 신사법시험이 실시됐고, 시험합격자는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거친 후 판사, 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다. 구 사법시험은 2010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2 일본 법과대학원 교과과정

▶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정규과정과 단축과정으로 나뉜다. 3년(6학기)에 93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정규과정이 가장 일반적이고,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수업연수를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즉, 단축과정은 학부 법학전공자 중 법률과목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2년(4학기)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무엇을 배우나? 일본 법과대학원은 교육이념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4개의 과목군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알고 가세요!

일본은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했지만, 운영이나 시험제도 등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다르게 법과대학을 없애지 않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법률기본

공법계(헌법, 행정법 등), 민사계(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형사계 (형법, 형사소송법 등)

실무기초

법조윤리, 법정보조사, 요건사실과 사실인정의 기초,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lawyering, clinic, externship

기초 법학 · 인접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 등

전개 · 첨단

노동법, 경제법, 세법, 도산처리법, 국제사법, 지적재산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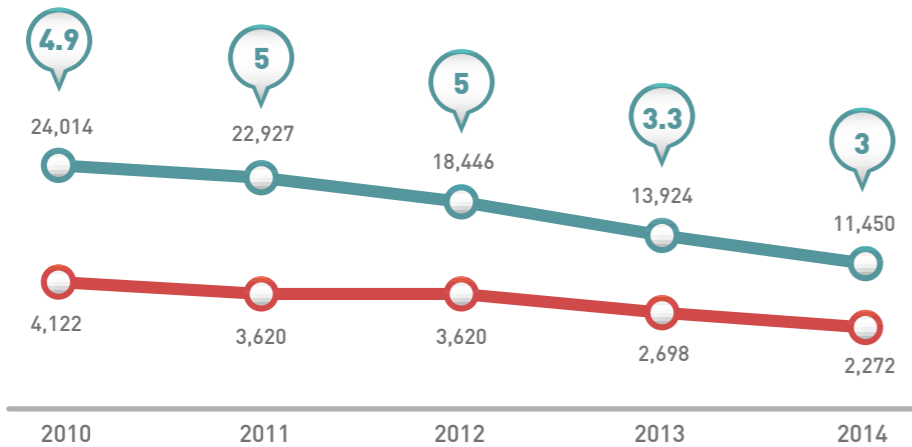
3 일본 법과대학원 입학시험

▶ 일본의 법과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에 해당)을 치러야 한다. 법과대학원 적성시험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적성시험과 법과대학원별 개별 시험 두 개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 이외에도 학부에서의 학업성적, 외국어, 사회적 경력이나 학업 이외의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자를 선발한다.

적성시험			각 법과대학원 개별 시험		
- 미국의 LSAT를 모델로 하여,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의 자질을 시험.			- 법학 이수자/미수자 과정으로 나뉨.		
1교시	추리·분석력(25문항 90분)	50점	- 시험과목		
2교시	독해·표현력(34문항 90분)	50점	논리적판단력	40분	100점
- '대학입시센터'와 '일본 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에서 주관하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한 적성시험성적을 인정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선택 후 공지.			분석력	40분	100점
			장문 독해력	40분	100점
			논술시험	40분	
			- 각 법과대학원별 면접 등이 진행됨.		

4 일본 법과대학원 지원자 현황

▶ 현재 일본 법과대학원은 딜레마에 빠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법과대학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74개교에 정원도 최고 5,825명에 달했지만,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낮고, 변호사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법과대학원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입학정원	4,909명	4,571명	4,484명	4,261명	3,809명
입학률	84%	79.2%	79.2%	63.3%	59.6%

5 등록금과 장학금

여기서 잠깐!

일본은 법과대학, 법과대학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원도 많아 재정적 부담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정원통제, 장학금 파다지급, 법과대학 폐지, 정부지원 미흡 등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150만엔 ~ 250만엔
(한화 약 1,520만원~2,500만원)

▶ 일본 사립 법과대학원의 학비는 연간 150만엔~250만엔(한화로 약 1,520만원~2,500만원)대에 달하며,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법과대학원도 100만엔(한화로 약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

▶ 법과대학원마다 등록금에는 차이가 있지만, 60개가 넘는 법과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경쟁적으로 학비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국가가 직접 법과대학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연간 108억 700만엔(한화로 약 1,200억원) 정도를 법과대학원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지원하는 이 금액은 대부분 경쟁비 보조금, 일본학생지원기구를 통한 학자금 융자, 장학사업, 교육·연구 프로젝트 지원으로 사용된다.



6 법조인 자격시험 제도

▶ 3년(또는 2년)의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면, 신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사법시험은 일본 법조인의 자격시험 제도이며,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이다. 신사법시험은 5년 동안 3회간 응시 가능하다. (2015년부터 응시횟수 제한 폐지, 아래 신문기사 참조)

신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폐지 개정안 통과

일본 참의원은 지난 5월 28일 일본의 신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험자의 심리적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당장 2015년 사법시험부터 적용된다.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일본의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5년간 3회만 볼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돼왔다. 사회적으로도 고급인재들이 3번 밖에 도전할 수 없다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법조계를 기피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개정안은 법과 대학원 수료 또는 예비시험 합격 후 연 1회의 시험을 5년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5회 불합격하더라도 다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재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1~2013년까지 3회 연속 불합격해 응시자격을 잃은 수험생의 경우 2015년에 재수험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단답식 시험 과목수를 현행 7과목에서 3과목(헌법, 민법, 형법)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사출처_new1 국종환기자 (2014.05.28.)

여기서 잠깐!

예비시험이란?

기존 사법시험(구 사법시험)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예비시험이 실시됐다. 예비시험이란 법과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조인 자격을 습득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은 법과대학원 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식과 응용 능력, 법률에 관한 기초적 실무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

▶ 평가과목: 일본 신사법시험의 과목은 단답식 시험과 논문식 시험으로 나뉘는데, 단답식은 공법계와 민사계 그리고 형사계로 구성되며, 논문식은 필수과목이 되는 위 단답식 과목 이외에 선택과목으로써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국제관계법(공법), 국제관계법(사법), 환경법 중에서 택일한다. 신사법시험 과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사법시험의 평가과목〉

	단답식 시험 3 과목 (7분야)	논문식 시험 4과목 (8분야)
출제형식	마크 시트 방식	장문의 구체적 사례 문제
공법계	헌법·행정법에 관한 분야	
민사계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	
형사계	형법·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	
선택과목	미설시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경제법, 국제관계법(공법), 국제관계법(사법), 환경법

7

합격에 관한 통계

여기서 잠깐!

일본은 준칙주의를 채택해 일정 기준 이상만 갖추면 30~3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가주의를 채택해 정부가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변호사시험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신사법시험의 시험일정〉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단답식 민사계 (2시간 30분) 단답식 공법계 (1시간 30분) 단답식 형사계 (1시간 30분)	논문식 선택과목 (3시간) 논문식 공법계 (4시간)	논문식 민사계 - 제1문제(2시간) - 제2문제(4시간)	논문식 형사계 (4시간)

▶ 신사법시험의 합격률 최근 4년간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0%대로 저하됐는데, 이는 법과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같이 낮은 합격률의 원인으로는 법과대학원 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 및 수험생 자질 하락,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한 응시자 수 증가 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저하됨에 따라, 거의 모든 법과대학원이 시험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편성하는 등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해야 하는 법과대학원이 시험 대비 위주의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신사법시험 합격률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격률	48.3%	40.2%	33.0%	27.6%	25.4%	23.5%	25.1%	24.6%

8

판사와 검사의 임용

참고문헌 / 참고자료

▶ 신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소에서 1년 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민사재판수습, 형사재판수습, 검찰수습, 변호사수습을 각 2개월씩 실무기관에서 실시하고 연수소에서는 달리 이론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법과대학원에서 실무를 위한 법이론 교육을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후 종합형 실무수습 2개월(실무기관)과 집합수습 2개월(사법연수소) 2개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면, 1년간의 사법연수소의 연수가 끝난다. 이렇게 사법연수소를 수료한 자 가운데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 _ 마츠시타 준이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 _ 拙稿, 일본의 로스쿨 도입현황과 과제(Ⅰ), 계간 세무사 통권 107호(2005년 겨울호)
- _ 拙稿, 일본의 로스쿨 도입현황과 과제(Ⅱ), 계간 세무사 통권 108호(2006년 봄호)
- _ 일본 법과대학원협회 <http://www.lawschool-jp.info/>
- _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잭 니콜슨·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킨다. 어느 작가의 노트에는 죽기 전에 봐야 할 예술작품이 빼곡히 적혀있지만, 아름다운 작품이 많아 끝내 다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노트를 펼쳐고, 적어라. 그리고 보아라!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채워질 것이다.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전시기간 2014.7.3(목) ~ 2014.10.12(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입 장 권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
홈페이지 <http://www.munchseo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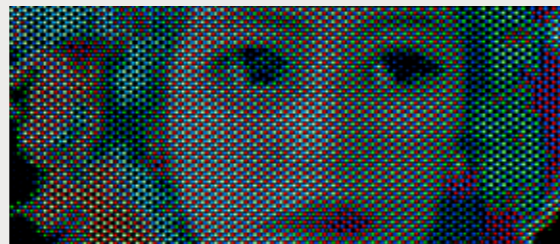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를 표현한
 몽크의 걸작 <절규>도 만나볼 수 있어

에드바르트 몽크 영혼의 시 展

7월 3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이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바르트 몽크의 회고전 <에드바르트 몽크- 영혼의 시>展이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2014년, 유독 힘들고 지친 우리의 감성을 위로해줄 이번 전시에서는 에드바르트 몽크의 걸작 <절규 The scream> 석판화 버전을 포함하여 유화버전의 <생의 춤 The Dance of Life>, <마돈나 Madonna>, <뱀파이어 Vampire>, <키스 The Kiss> 등 몽크의 대표작과 직접 촬영한 셀프카메라 등 총 99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몽크의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20세기 초 유럽에서 격동의 시대를 겪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황규태 사진 이후의 사진 展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7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적 기법으로 한국 사진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황규태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기자로 재직하며 다큐멘터리 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한 황규태는 1965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사진의 한계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세계를 개척해나간다. 2011년 서울시립미술관에 60점의 작품을 기증한 황규태 작가의 작품기증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초기 몽타주와 그 이후의 디지털 몽타주, 버닝(burning) 시리즈, 대형카메라를 이용한 픽셀 확대 작업, 현재 작가가 몰두하고 있는 최신작 '기(banner)' 시리즈 등의 대표작들로 구성되어 40여 년에 걸친 황규태의 작업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조명한다.



전시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2
전시기간 2014.7.1(화) ~ 2014.9.14(일)
관 람 료 무료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말이 필요 없다!
 CHICAGO IS BACK !

뮤지컬 시카고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매 시즌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도림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시카고>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에 이어서, 7300회 이상 공연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3번째로 통련하고 있는 공연으로 그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공연 10번째 시즌을 맞는 2014년 뮤지컬 <시카고>는 파워풀한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 최정원이 벨마 켈리역으로, 사랑스러움과 섹시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아이비가 록시 하트역으로 출연한다. 이들은 각 배역에 단일 캐스팅 되어 환상적인 호흡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팔색조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종혁과 전수경이 새롭게 합류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Musical



공연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공연기간 2014.8.2(토) ~ 2014.9.28(일)
관 람 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OP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Perfomance

복싱 경기장을 옮겨온 듯한 역동적인 연극,
 김수로 프로젝트 4탄!

이기동 체육관



공연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2관
공연기간 2014.8.1(금) ~ 2014.9.14(일)
관 람 료 전석 4만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8월 1일(금)부터 9월 14일(일)까지 대학로 예술마당 2관에서 공연하는 <이기동 체육관>은 2009년 초연된 이후 꾸준히 사랑 받아온 작품이다. 초연 당시부터 최초의 복싱 연극이란 타이틀을 얻으며 수차례 매진되는 흥행을 이어왔으며, 경기장을 무대에 옮겨온 듯한 특색 있는 연출로 수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연극이다.

연극 <이기동 체육관>은 과거의 복서 이기동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동명의 청년 이기동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휴먼코미디다. 체육관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에서 실제 권투 트레이닝을 통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김수로가 초연 관람 후 가장 아끼는 연극으로 꿈을 만큼 작품성이 보장되는 작품이다. 김수로를 비롯하여 강성진, 문진아, 박은미 등이 출연하며, 제작 단계부터 입소문을 타며 연극계 브랜드를 구축해가는 만큼, 이번 공연의 흥행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EWS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지난 7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2014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송덕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위원장(김정완, 김준호, 박종보, 손동권)과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의 출제 위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7월 17일(목)과 18일(금) 양일간 법학전문대학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및 채점 관련,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개최에 대

한 집중 업무 연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의 분임토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교육 기부 현장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교육 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의 일환으로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 및 향후 진로(로스쿨 준비)”의 강의를 진행했다. 서지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의



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9개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강의로 나서 그들의 교육 재능을 어린 학생들에게 기부했다. 각 법전원의 학생회장들은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하는 등의 열정을 보였다.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8월 17일(일)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됐다. 본 시험은 전국 9개 지구(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에서 실시됐으며 15개 학교에서 지원자 8,788명 중 92.33%인 8,114명이 응시했다. **창**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 설명회 개최



로스쿨 수험생에게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로스쿨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하는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험생과 로스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5개교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참가
- 일 시** 2014년 9월 26일(금)~27일(토) 11:00~18:00
- 장 소** 중앙대학교 체육관(서울시 흑석동 소재)
-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등 개별 상담 실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담부스 설치, 운영)
- 행사문의** 협의회 사무국(TEL. 02-752-2036,2037)

2014년 발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전원 재학생들의 실력향상과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해 연 3회(6.8.10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설집을 제작했으며,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제2차, 제3차, 2014년도 제1차 문제 및 해설수록 (공법, 형사법, 민사법)

- 구입방법** 일괄구매: 2014년 9월 초 각 로스쿨에 공지 후 수요 조사 실시, 학교별 배송
개인구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참조(info.leet.or.kr)
※ 2013년, 2014년 발간본 구입 가능
- 가 격** 미정
- 구입문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888-2031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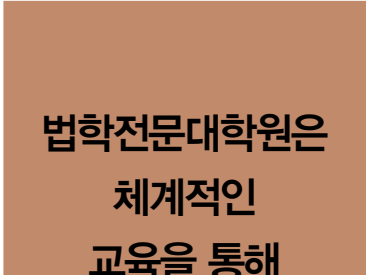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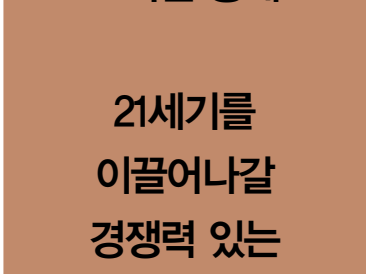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